

EU, 신규가맹국과 유기농업동향

유럽연합(EU)은 2004년 5월 1일 10개국 이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25개국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EU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농업구조와 교역조건을 지닌 국가들이 하나의 단일시장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농업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의 기회를 충분히 살려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각계 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 유럽 연합 확대에 의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유기농산물 관련 언론 자료를 통해 향후 유럽 연합 농산물 시장변화의 방향을 살펴본다.

EU를 동부 유럽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4억 5,000만 이상의 소비자가 생활하는 무역 장벽 안으로 새로운 10개의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연합 확장은 유기 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CEE)의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들은 EU 가입을 통해 1,100억 유로 규모의 서부 유럽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의 많은 농가들이 EU 확대에 대비하여 유기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신규가입국 중 가장 큰 3개 국가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서는 1999~2003년간 유기농업 농지가 150% 가까이 증가하였다. 신규회원국 전체 유기농업농지는 약 514,000ha에 달한다. 체코는 235,136ha에 달하는 가장 넓은 면적의 유기농업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전체 농업농

지의 5%에 달한다. 이것은 기존 EU 15개 회원국 평균인 3.5%보다 높다.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의 유기농업농지 중 어느 정도는 수출 목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는 서부 유럽국가로의 지속적인 유기농산물(곡류, 허브, 양념류, 채소류) 수출에서 기인한 것이다. 폴란드의 유기농업생산자는 수년간 유기농 채소, 과일, 딸기를 서부유럽에 성공적으로 수출해 오고 있다. 또한 서부 유럽 기업들과 중부 및 동부 유럽 유기농업농가 사이의 계약 재배도 성행하고 있다.

EU 가입으로 시장 단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규 가입국 유기농업농가들은 서부 유럽국가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무역장벽이 없기 때문에 신규가입국의 유기농산물들은 수입 관세 없이 서부로 판매됨을 의미한다. 또한 신규가입국 유기농생산자들은 서부유럽에 무역사무소를 설립하여 마케팅과 판매 활동관리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서부 유럽의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EU는 EU 전체의 유기농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 유럽과 중부 및 동부 유럽 사이의 유기 농산물 무역이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규 가입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 상품의 대부분은 원상태 그대로의 상품이다. 신규 가입국은 유기농산물 상품화 능력이 부족하다. 이를 파악한 서부 유럽의 식품 기업들은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 시장을 노리고 있다. 몇몇 독일 기업들은 이미 체코와 헝가리 시장으로 진출하였고 이제 무역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유기농 식품기업들은 다른 일반 식품기업과 같이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에 가공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기업인 ‘Hipp’는 이러한 점에서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이미 다수의 중부 유럽국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였고 이 공장을 통해 Heninz, Nestle, Numeco와 같은 전통적인 유아식품 대기업과 경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유아식품 생산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 유럽국가의 대부분 유기농산물 관련 기업들은 위험이 낮은 시장 접근방법을 사용하며 공장의 설립보다는 단순히 수입업자나 도매업자가 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 유럽 유기농 식품산업 몇몇 부문에서 드러나는 낮은 시장 성장률과 시설 과잉으로 인한 생산 과잉 문제를 동부 유럽으로의 확장을 통해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과잉의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동부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EU 확대는 기회뿐만 아니라 위험도 가져왔다.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의 농업기업이 서부 유럽의 효율적인 거대 기업과 경쟁해야 함에 따라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 농업계에 구조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은 EU 신규회원국 중 가장 큰 국가이며,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폴란드 농업부문에는 노동인구의 28%가 고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농업개혁으로 대규모 집약 농업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천의 소규모 농가들은 농업을 그만두어야 했으며 이는 높은 실업률을 가져오게 되었다.

현대적인 서부 유럽의 농업 부문과 경쟁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많은 중부 및 동부 유럽 농가들이 농업을 단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농가들은 농업을 현대화하고 대규모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의 농가들은 유기농업을 소규모의 자산으로 소규모의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선택으로 보고 있다.

자료: 유기농산물거래서비스
(채종현 pooh4514@hotmai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